

과학생회 여부장이 저희의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

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6.15 공동선언의 위력으로 이렇게 북녘의 곳곳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기쁩니다.

이런 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면서

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겠습니다.

저희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에서도 더욱 힘껏 노력하겠습니다.

지금 보내는 이 엽서는 선물이라고 하기에 좀 쑥스럽습니다.

왜냐하면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할 때 북측에서 가져오셨던 그림을 활용해서 엽서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그 엽서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항의엽서 쓰기 운동을 전국 대학의 학우들과 함께 벌여냈었습니다.

그런데 몇 차례의 교류를 하면서 미처 이 엽서는 보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이라도 보냅니다.

참으로 감사히 잘 썼습니다.